

特 輯

新經濟 5個年計劃

'94年度 經濟運營方向

I. 지난해의 經濟運營 成果

- 新정부 出帆 당시 우리 經濟는 누적된 經濟制度上의 積弊와 景氣沈滯 및 經濟主體들의 意慾低下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이에 새政府는 「新經濟 5個年計劃」을 수립하여 우리 經濟의 成長潛在力を 배양하기 위한 制度改革과 諸般時策을 推進
- 우선 金融·財政·行政規制 등에 걸친 制度改革을 통하여 經濟運營의 새「틀」을 마련하는데 주력
 - 金融實名制와 2段階 金利自由化의 시행으로 金融秩序의 정상화와 社會衡平의 제고를 위한 土臺를 마련
 - 財政支出構造와 糧政制度의 改編, 여러 特別會計와 基金의 정비 등 財政改革을 추진
 - 3次에 걸친 經濟規制의 緩和作業과 함께, 經濟主體間의 苦痛分擔과 經濟意識의 改革에 힘써 왔음.

- 또한 APEC 頂上會談을 비롯하여 UR協商이 타결되는 등 우리 經濟의 國際化와 世界化를 향한 새로운 轉機가 마련됨.
 - 產業構造의 調整, 社會間接資本의 확충 등 國家競爭力 強化의 기반조성이 시급하다는 國民的 共感帶가 형성되었음.

이상의 國內外의 成果를 더욱 內實있게 다
져가면서, 「安定基調下에 經濟를 活性化」시
키는 일이 새해의 基本課題임.

II. 當面한 經濟與件과 課題

- UR協商타결에 따른 世界交易秩序의 再編과 北美自由貿易協定(NAFTA)의 발효, 유럽經濟地域(EEA)體制의 출범 등으로 世界經濟는 國家間의 無限競爭을 유발
- 이러한 國際化의 물결을 타고 우리 經濟가 世

界市場으로 跳躍하기 위해서는, 「世界속의 韓國經濟」를 設計한다는 새로운 發想과 姿勢의 轉換으로 다음 課題들을 打開해야 함.

- 穗市場開放에 따른 農漁民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開放下에서도 自活할 수 있는 農漁業政策을 어떻게 마련하며, 農漁村을 활기찬 생활터로 어떻게 再建할 것인가?
- 國際화의 주역은 結局 企業일 수밖에 없는 바, 위축된 企業意慾을 어떻게 고취하여 저조한 企業活動을 活性化시킬 것인가?
- 輸出과 成長의 발목을 잡고 있는 누적된 輸送力不足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며, 國家競爭力を 弱化시키고 있는 地域間不均衡의 疾病을 어떻게 是正할 것인가?
- 自立經濟의 달성이란 목표아래 그동안 쌓여온 國內의 各種制度와 慣行을 開放體制下에서 어떻게 再編할 것인가?
- 物價安定과 「삶의 質」향상에 대한 國民期待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物價를 安定시키고 國民生活與件을 改善할 것인가?

새해에는 「安定基調下의 經濟活性化」를 도모함으로써 國政目標인 「國家競爭力 強化」에 최대한 이바지하고자 함.

III. 새해의 重點時策： 安定基調下의 經濟活性化

- (1) 農漁村對策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穗開放에 따른 불안감을 덜어주고, 競爭력 있고 活力있는 農漁村社會의 建設을 위

한 기틀을 마련함.

- 農漁業, 農漁村, 農漁民을 포괄하는 綜合對策, 「農漁村 特別稅」의 신설

- (2) 民間 企業活動이 活性化되도록 企業環境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 企業活動의 活性化, 勞使和合, 技術開發

- (3) 社會間接資本施設의 확충과 地域間均衡發展의 도모로 國家競爭力 기반을 강화함.

- 「交通稅」의 활용, 地域均衡發展의突破口 마련

- (4) 새로운 世系經濟秩序의 形成에 대비하여 國際化촉진을 위한 制度改革과 構造調整을 가속화 함.

- 制度 및 慣行의 國際化 조치, 產業의 構造調整 유도

- (5) 經濟活性化 기반인 物價安定을 期하고, 「삶의 質」向上을 위한 國民生活環境의改善을 계속 추구함.

- 生活必需品의 特別管理, 住宅·交通·環境改善 등

IV. 施策別 主要內容

1. 農漁村對策의 本格化

- 2000年代를 대비한 農漁村對策을 수립·추진
 - 農漁村實相의 정확한 診斷을 바탕으로, 農漁業·農漁村·農漁民을 포괄하는 綜合的인 3角觀點에서 對策수립
 - 農漁村을活力있고 다양한 1·2·3次 產業이混在하는 複合活動의 터전으로 육성
- 「農漁村 特別稅」를 신설하여 所要財源을 확보

- 年間 1兆 5千億원 規模로, 넓은 稅源에 낮은 稅率로 課稅
- 法案은 2月안에 마련 國會에 제출하여, 7월부터 施行 목표
- 農水產業의 競爭力を 強化하고 다양한 農漁村所得源을 개발
 - 外部資本의 農漁經營參與를 허용하여 영농의 專門化와 規模화를 촉진하고 農漁生產基盤을 조기에 정비
 - 農漁村 工業化를 촉진하는 등 農漁村을 1·2·3次 產業이 함께 발전하는 複合產業構造로 개편
 - 農地·山地制度 등 農林水產 關聯制度와 組織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農漁村 構造改善을 뒷받침
 - 農漁村의 空洞化 방지를 위하여 農漁村의 生活與件을 개선
- 青瓦臺의 「農漁村 發展委員會」를 통해 폭넓은 意見을 수렴하여, 上半期안에 綜合對策을 마련·시행

2 企業環境의 획기적 改善

- 公企業 經營을 刷新하여 民間의 參與를 높이고 國民經濟의 効率을 증진
 - 지난해 12월에 확정한 「公企業 民營化 및 機能調整方案」에 대한 細部施行計劃을 所管部處別로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
 - 民營化對象에서 제외된 公企業은 經營診斷을 실시하여 經營革新方案을 마련하고, 民營化 可能性을 추가로 검토
- 公共施設에 대한 民資誘致를 과감히 추진하여 民間企業의 自律性과 事業領域을 확대
 - 상반기안에 「民資誘致促進法」을 제정하여 誘因裝置를 마련

- 社會間接資本과 工團開發事業 등 公共施設에 民資를 적극 誘致
- 脫規制 次元의 規制緩和 作業을 계속 추진
 - 規制緩和 推進方式을 기능별·업종별 重點課題 위주로 전환하여 體系的인 개선방안을 마련
 - 각종 經濟關聯法令을 부처별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規則·告示上의 자의적인 規制要素를 대대적으로 정비
 - 「經濟行政規制緩和點檢團」이 적출하는 現場의 問題點을 신속 유효하게 조치
 - 行政의 서비스機能을 높이고 公共部門의 비 능률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 勞使兩側의 불합리한 慣行을 개선하고 상호信賴와 協力を 바탕으로 同伴者體系를 구축하여 「勞使和合 雾圍氣」를 定着
- 조속한 시일안에 中央勞使團體間의 임금협상을 自律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個別企業 단위에서도 勞動生產性의 向上과 병행하여 賃金引上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95년 실시예정인 雇傭保險制度의 효과적인 運營方案을 마련하고, 構造調整에 따른 雇傭不安의 減小策도 강구
- 科學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政府의 機能을 강화하고, 民間의 技術開發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
 - 次世代半導體를 포함한 11개의 先導技術, 生產技術, 生命工學技術 등 정부주도 기술개발사업의 規模를 확대
 - 新技術의 事業化, 產·學·研의 協同研究開發, 研究人力의 養成 등 民間의 技術開發活動을 뒷받침하는 關聯制度를 整備
 - 超高速 情報通信網, 情報通信器機等 情報產業技術을 적극 개발하고, 情報化의 촉진을

위한 실효성있는 法制度를 마련

- 產業界의 需要에 부응하여 優秀한 技能人力과 專門技術人力의 양성을 위한 時策을 적극 추진
 - 工高의 新·增設을 위한 財政投資를 확대하고, 工高生의 產業現場訓練制度를 차질없이 시행
 - 公共職業訓練院을 점차 「技能大學」으로 개편하면서, 「產業技術大學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강

3. 社會間接資本의 확충과 地域均衡發展

- 開放化·地方化時代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社會間接資本施設 확충을 위한 投資를 확대
 - 新設된 「交通稅」등을 활용하여 도로·항만·철도·공항 등 全體 交通網을 체계적으로 구축
 - 東北亞地域의 中樞空港인 永宗島 新國際空港과 京釜高速鐵道의 建設을 본격화
 - 상반기안에 「流通團地開發促進法」을 제정하여 流通團地를 체계적으로 開發
- 既存 社會間接資本施設의 運營을 효율화
 - 港灣 등 公共施設의 一部 운영을 民間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 料金體系와 行政規制의 정비를 통해 施設運營을 합리화
 - 物流綜合電算網 事業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物流情報의 정확히 파악하고 物流費用을 節減
- 相對的 落後地域(西南圈, 東北圈)에 대한 發展計劃을 마련
 - 地域別特性을 감안하여 產業施設과 尖端技術을 유치하고, 觀光團地를 조성하는 등 地域間均衡發展을 위한 時策을 강구

– 教育, 金融, 社會間接資本 확충 등 地方의 發展與件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突破口를 마련

4. 經濟制度의 國際化 및 構造調整 推進

- 開放化를 內實있게 實踐하고 制度와 慣行의 國際化를 促進
 - UR協商 結果를 반영하여 國內產業의 構造調整을 적극 유도하고, 수입제한제도, 산업피해구제제도 등 關聯制度를 쇄신
 - 外國人投資의 自由化幅을 확대하고 投資環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外國人投資를 적극 유치
 - 國際化的 진전에 대응하여 中小企業의 構造調整을 촉진하고 각종 支援制度를 실효성 있게 보완
- 國內制度의 改革을 바탕으로 多者間 世界經濟秩序의 形成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世界貿易機構(WTO)설립등 UR협상 타결 이후 전개될 追加商品과 環境基準을 貿易規制와 연계시키는 그린·라운드 등 새로운 國際的動向에 능동적으로 대응
 - '96년의 OECD加入에 대비하여 外換·資本自由化를 적극 추진하고, 金融行政規制를 緩和하는 동시에 金融經營의 自律性을 확대하는 金融改革을 계속추진
- UR協商 타결을 對外進出 擴大의 好機로 활용
 - 각국의 關稅·非關稅障壁의 緩和, 輸出自律規制의 폐지 등 輸出環境改善과 관련된 情報를 분석하여, 企業으로 하여금 對外進出戰略을 수립토록 지원
 - 輸出商品의 高附加價值化, 固有商標의 개발, 輸出마케팅基盤의 확충 등 다양한 海外市場開拓 활동을 통하여 輸出競爭力を 강화

5. 物價安定과 國民生活의 質的 改善

- 원활한 需給調節과 流通改善으로 構造的인 物價安定基盤을 구축하여 庶民生活과 賃金安定을 뒷받침
 - 庶民生活의 안정을 위해 30個 基礎生活用品價格을 平均 4%수준에서 안정되도록 特別 관리
 - 工產品은 經營改善을 통한 자체 흡수를 원칙으로 하고, 140個 獨寡占品目의 談合行爲 등은 엄격히 관리
 - 理·美容料, 外食費 등 個人서비스料金은 地方自治團體長이 책임을 지고 지역실정에 맞추어 適正水準에서 안정을 유도
 - 地方稅法 改正, 不動產關聯情報網의 확충 등 投機抑制策을 보완
- 住宅·大都市交通·環境 등 國民生活與件을 지속적으로 개선
 - 公共部門에서 庶民用小型住宅 20萬戶를 건설하는 등 年間 總 50~60萬戶의 住宅建設을 유도
 - 地下鐵網의 擴充 등 대중교통중심의 交通體系를 구축
 - 「맑은 물」共給對策을 착실히 추진하고, 廢棄物의 減量化와 再活用을 촉진하는 등 綜合的인 廢棄物管理對策을 추진
- 經濟社會의 與件變化에 부응하여 社會福祉施策을 내실있게 발전
 - 農漁民年金制의 구체적인 導入方案을 마련하고, 醫療需要 증가에 대처하여 醫療體制와 醫療保險制度를 개선
 - 老齡化, 女性의 사회참여 확대 등 社會構造의 變化에 부응하고 零細民의 生活安定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施策을 전개

V. 새해의 巨視地標 運用과 經濟 모습

1. 巨視地標의 運用

- 金融·財政政策은 2~3年 앞을 내다보면서 全般的인 安定基調위에 持續的 成長이 가능하도록 일관성있게 運營
- 總通貨는 物價安定을 해치지 않도록 安定의 으로 管理하고, 管理方式도 금융자율화와 개방추세에 대응하여 間接規制方式으로 전환
 - 아울러 企業의 有償增資 확대, 外資調達에 대한 규제완화, 금융기관의 經營合理화 및 競爭促進 등을 통하여 金利를 安定시키고 企業의 金融費用 負擔을 완화
- 財政은 健全財政基調를 유지하는 가운데 公共資金管理基金의 신축적 운영 등을 통하여 財政의 景氣調節技能을 제고
 - 이와 함께, 財政을 거시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統合財政收支 등 財政關聯統計를 보완·발전
- 金融實名制의 定着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金融 및 稅制改革과 金融貯蓄 增大를 위한 方案을 마련하여 추진
- 資本收支 黑字規模의 확대에 대비하여 通貨·金利·換率 등 巨視政策變數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市場機構內에서 합리적으로 運營되도록 巨視經濟運營의 새「틀」을 발전

2 새해의 經濟 모습

- 先進國 景氣가 지난 해보다는 다소 나아지고 UR協商 타결이 輸出에 긍정적인 影響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의 投資意慾도 되살아나고 있으므로 經濟成長은 작년보다 好轉될 것으로 전망됨.

- 成長의 內容面에서도 소비 등 内需보다는 輸出 및 製造業 중심으로 보다 堅實해질 것 으로 예상됨(展望值 綜合: 6~7%)
* 成長率 전망: KDI 7.0%, 한국은행 6.3%, 민간경제연구소 5.5~6.8%
- 消費者物價는 總需要管理, 共給陰路要因의 해소, 公正競爭의 촉진 등으로 대체로 昨年水準 을 유지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할 것임(展望值 綜合: 6%내외)
* 消費者物價 전망: KDI 5.6%, 한국은행 6.1%, 민간경제연구소 5.8~6.0%
- 對外去來面에서는 輸入이 内需回復에 따라 증가세가 다소 높아지겠으나, 輸出의 지속적伸張勢에 따라 전체 貿易量이 확대 되는 가운데, 經常收支는 黑字幅이 늘어날 것임.(展望值 綜合: 10~20億弗)
* 經常收支 전망: KDI 12億弗, 한국은행 5億弗, 민간경제연구소 4~22億弗

「國家競爭力 強化」라는 國政目標에 맞추어 經濟運營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우리 經濟는 지난 年末 이후의 景氣回復勢를 타고 점차 活性化의 軌道에 進入할 것으로 보임.

VI. 經濟企劃院의 業務活動計劃 —別添「業務報告」參照—

- 以上에서 報告올린 새해 經濟施策方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院의 業務活動計劃의 骨子를 報告드리겠음.
- 무엇보다도 物價安定의 確保에 最優先의

- 努力을 기울이겠음.
- 年初의 公共料金 調整에 따른 物價不安心理를 鎮靜시키기 위하여, 汎部處次元의 物價對策會議를 수시로 개최하여 物價安定에 대한 政府의 확고한 意志를 國民에게 闡明토록 하겠음.
- 豫算運用面에서는 社會間接資本 확충 등既定豫算을 效率的으로 執行하는 데 주력하면서, 금년 상반기에 수리할 「農漁村對策」의 내용에 맞춰 追更을 編成하는 準備도 갖추겠음.
- 또한, 地域均衡發展 綜合對策의 마련, 금융·산업·무역 등 各分野別 國際化 推進計劃의 수립, 그리고 科學技術 및 人力開發施策 등에 있어 政策의 綜合調整技能을 效率化 하겠음.
- 특히, 금년 經濟運營의 關鍵이라고 할 수 있는 勞使和合을 위한 社會雰圍氣의 조성에 다각적인 努力を 傾注하겠음.
- 아울러, 脫規制의 차원의 規制緩和作業을 「經濟行政規制緩和點檢團」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보다 體系的으로 추진하고, 公正去來秩序의 定着과 함께, 公企業 經營改革의 後續措置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음.
- 當院은 이러한 시책추진과 함께 對內外環境變化에 맞춰, 各部處의 事業 推進과 民間經濟活動을 支援·促進하는 등 「돕고奉仕 하는」所任을 다하도록 하겠음.

맺 음 말

- 금년은 「新經濟」 계획의 第2次年度로서 이상 보고드린 施策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온 改革과 變化가 「國家競

爭力의 強化」로 結實을 맺도록 總力を 傾注하겠음.

- 이러한 結集된 노력을 통해 經濟先進화의 토대를 다지기 위하여, 안으로 經濟

安定基調下에 活性化시키고, 밖으로 「世界속의 韓國經濟」를 設計하는 활기찬「일하는 한해」가 되도록 精進하겠음.

전안

社 告

전기용품 형식승인서 반납요청

공업진흥청에서는 배전전압 승압계획에 따라 220V승압에 따른 기술기준운영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10V전용제품은 1979년 1월 1일~1993년 1월 1일(전동공구7품목 1995년 7월 1일), 110/220V겸용제품은 1993년 1월 1일 ~ 19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품목별로 형식승인 금지시기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110/220V겸용제품의 금지시기가 도래된 다음제품은 금지시기 이후에는 제품을 생산 및 수입할 수 없으며 형식승인 당시 금지시기가 도래되면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조건부로 승인된 것이므로 해당되는 형식승인서는 공업진흥청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지시기	대상품목
1993년 7월 1일	선풍기, 비디오테이프레코다, 전기냉풍기, 전기보온밥통, 고주파엘더, 가정용저주파치료기, 가정용초음파치료기, 가정용초단파치료기, 전기세미기, 야채세정기, 전기빙삭기, 디스포자, 면도용거품발생기, 전동식흡입기, 전기맞사기, 지압대용기, 기타가정용전동력응용치료기, 등사기, 물수건포장기
1994년 1월 1일	테이프레코다, 레코드플레이어, 전기축음기, 앰프, 튜너, 프리앰프, 테이프데크, 테이프플레이어, 기타음향기구, 초음파가습기, 전류제한기, 전기세탁기, 전기온풍기, 공기청정기, 전기마루닦기기, 전기구두닦기기, 전기탈수기, 전기칼날갈개, 전기흑판지우개크리나, 전동미싱, 사무용인쇄기, 전기열풍응용기, 8mm영사기, 전자후레쉬, 조광기, 잡음방지기, 전기우물펌프, 모니터, 프린터, 전동타자기, 전기오븐, 전기건조기, 전기스토브, 기타채난용전열기구, 전기변좌